

#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3.10.16

## 미 증시, 대형은행 호실적 불구 지정학적 불안에 하락

김석환 seokhwan.kim@miraeasset.com

### 미 증시 동향: 지정학적 불안

•미 증시는 장 시작 전 발표된 대형은행 호실적에 상승 출발하였으나, 10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악화,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및 이스라엘-하마스 간 분쟁 확대 우려에 상승폭 축소하며 혼조세로 마감. 특히 시장은 지정학적 불안에 광범위한 반응을 보였는데,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VIX)가 20% 넘게 급등하였고 국제유가는 5% 넘게 급등하며 에너지株가 전반적인 강세를 보임. (다우 +0.12%, 나스닥 -1.23%, S&P500 -0.50%, 러셀2000 -0.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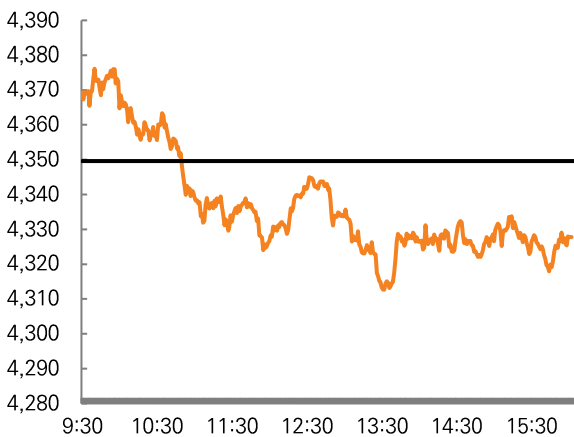
### 특징 종목: 금융 · 에너지 강세

•S&P 500의 주요 섹터 중 에너지(+2.25%), 유틸리티(+1.09%) 등이 강세를 보인 반면 IT(-1.52%), 경기소비재(-1.46%), 커뮤니케이션서비스(-1.32%) 등 주요 빅테크가 포함된 섹터 약세 기록. 주요 대형은행들의 호실적 발표 속에 JP모건(+1.50%), 웰스파고(+3.07%) 등 상승하였고, 프로그레시브(+8.13%)는 시장 예상을 상회한 순보험료 증가를 기록하며 강세. 달러제너럴(+9.16%)은 지난 12일 사임한 제프 오웬 CEO 대신 전임 토드 바소스를 CEO로 재선임 될 거란 소식에 강세. 중동 지정학적 불안 확산 우려로 국제유가가 5% 넘게 급등하자, 에너지株 전반의 강세 흐름이 나타남. 유나이티드헬스(+2.64%) 역시 시장 예상보다 나은 실적을 발표하며 상승.

### 한국 증시 전망: 안전자산 선호

•MSCI 한국 지수 ETF는 0.46%, MSCI 신흥 지수 ETF는 0.37%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51.07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보합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47% 하락. KOSPI는 0.3%~0.6% 내외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국내증시는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외국인의 ‘위험자산 회피, 안전자산 선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특히 연중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는 달러/원 환율의 추가 상승 압력은 외국인 수급에 우호적이지는 않을 전망. 또한 전일 美 증시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한 점은 테크 중심의 Mega cap 기업들의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준 만큼, 당분간 ‘지정학적 불안 - 유가 - 국제수익률 등락 - 환율변화’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음. 단기적으로는 지정학적 불안 및 유가 상승에 민감한 에너지, 방위산업株 등과 변동성(V-KOSPI)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456.15	-0.95	상해종합	3,088.10	-0.64
KOSDAQ	822.78	-1.52	홍콩항셱	17,813.45	-2.33
DOW	33,670.29	+0.12	인도센섹스	1,154.73	-0.19
NASDAQ	13,407.23	-1.23	유로스톡스 50	4,136.12	-1.48
S&P 500	4,327.78	-0.50	영국	7,599.60	-0.59
캐나다	19,462.86	-0.19	독일	15,186.66	-1.55
일본	32,315.99	-0.55	프랑스	7,003.53	-1.42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 ① 대형은행 호실적 ② 소비심리 악화

미 증시는 장 시작 전 발표된 대형은행 호실적에 상승 출발하였으나, 10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악화,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및 이스라엘-하마스 간 분쟁 확대 우려에 상승폭 축소하며 혼조세로 마감. 특히 시장은 지정학적 불안에 광범위한 반응을 보였는데,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 (VIX)가 20% 넘게 급등하였고 국제유가는 5% 넘게 급등하며 에너지주가 전반적인 강세를 보임.

### # 상승: 대형은행 호실적

JP모건체이스, 웰스파코 및 씨티 등 대형 은행들의 실적발표를 시작으로 3분기 어닝시즌 본격화. 앞선 대형은행들이 시장 예상을 상회한 호실적을 발표하며 어닝시즌에 대한 낙관적 분위기를 형성. 또한 경제전망에 나선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데이터의 급격한 변화가 없으면 연준은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올해 3% 미만으로 떨어지는 꾸준한 디스인플레이션을 예상한다고 말해. 반면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CEO는 지금은 세계가 수십 년 만에 본 가장 위험한 시기일 수 있다고 언급하며 3분기 호실적의 성과가 순이자소득(NIM) 및 신용 비용이 급증한 영향 때문이라면서 지속될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

### # 하락 ①: 소비심리 악화 및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는 9월 68.1에서 10월 63.0으로 하락해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시장 추정치인 67.0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지표는 전월 71.4에서 66.7로, 미래 기대치는 66.0에서 60.7로 하락해 역시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 반면 1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은 전월 3.2%에서 3.8%로 높아져 지난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5년 전망도 2.8%에서 3.0%로 높아져. 이는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그 동안 연준 위원들은 기대인플레이션 ‘잘 고정’되어 있다고 평가. 그러나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의 상승은 연준이 더 ‘할 일’이 있음을 의미할 수 있음. 이는 국제수익률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 실제 응답의 약 49%가 높은 가격이 생활 수준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9월의 39%에서 급격히 증가. 소비자들의 이러한 우려가 계속 커지면 소비심리 악화는 지속될 가능성 배제 못 해.

### # 하락 ②: 지정학적 불안 확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이 1) 주변국으로의 확산 우려와 2) 이스라엘의 지상전 등 지정학적 불안이 확대되며 국제 유가가 5% 넘게 급등하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美 장기채 수익률은 전일대비 거의 10bp나 하락하였고, 스위스 프랑은 1년 만에 유로화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기습공격을 한 지 일주일이 지난 현재,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110만 명에 대피하라고 경고. 이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작전을 본격화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이란은 당장 멈추지 않으면 통제불능이 될 것이라면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지속된다면 이란도 이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전해. 분쟁의 확산은 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유발 및 성장을 둔화 등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향후 전개 과정에 예의 주시할 필요 있어 보임.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금융, 에너지 강세

S&P 500의 주요 섹터 중 에너지(+2.25%), 유틸리티(+1.09%) 등이 강세를 보인 반면 IT(-1.52%), 경기소비재(-1.46%), 커뮤니케이션서비스(-1.32%) 등 주요 빅테크가 포함된 섹터 약세 기록. 주요 대형은행들의 호실적 발표 속에 JP모건(+1.50%), 웰스파고(+3.07%) 등 상승하였고, 프로그레시브(+8.13%)는 시장 예상을 상회한 순보험료 증가를 기록하며 강세. 달러제너럴(+9.16%)은 지난 12일 사임한 제프 오웬 CEO 대신 전임 토드 바소스를 CEO로 재선임 될 거란 소식에 강세. 중동 지정학적 불안 확산 우려로 국제유가가 5% 넘게 급등하자, 에너지株 전반의 강세 흐름이 나타남. 엑슨모빌(+3.19%), 셰브론(+1.75%) 뿐만 아니라 코노코필립스(+3.10%), EOG리소스(+3.78%), 데본에너지(+3.64%) 등 상승. 유나이티드헬스(+2.64%) 역시 시장 예상보다 나은 실적을 발표하며 상승. 반면 보잉(-3.34%)은 737 Max 8 모델의 일부 결함으로 생산 및 인도 지연 영향으로 하락. Max 8의 동체를 만드는 스피릿에어로시스템즈(-1.63%)도 소폭 하락. JD.com(-2.80%)은 모건스탠리가 중국의 약한 소비 추세로 투자 의견 하향 소식에 약세

상품 및  
FX시장 동향

## 국제 금 가격 1,900달러 돌파

국제 금 가격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확산되자 안전자산 선호 영향으로 3% 넘게 상승하며 온스당 1941.50달러를 기록. 올해 들어 3% 넘는 상승은 지난 3월 17일 미국 은행위기 확산 우려로 3.6%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아. 국제유가(WTI) 역시 5% 넘게 급등하며 올해 들어 가장 큰 일간 상승폭을 기록한 데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던 22년 3월 4일 기록한 6.1% 상승 이후 가장 큰 상승률. 유럽과 미국의 천연가스 선물 가격도 차별화되는 모습 나타나. 유럽 천연가스 선물은 지난 주 MWh(메가와트시)당 55유로로 40% 이상 급등하며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반면 미국은 생산량 증가, 멕시코로의 수출 감소 및 10월 말 온화한 날씨 전망으로 수요 감소가 예상되자 일주일 만에 가장 낮은 \$3.2/MMBtu 기록. 또한 美 국채시장에서는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우려보다는 지정학적 이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장기채 수익률 낙폭이 더 크게 기록되자, 10년물과 2년물 간의 차이인 장단기금리차는 -45bp까지 역전 폭 확대.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안전자산 선호

MSCI 한국 지수 ETF는 0.46%, MSCI 신흥 지수 ETF는 0.37%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351.07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보합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47% 하락. KOSPI는 0.3%~0.6% 내외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국내증시는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외국인의 ‘위험자산 회피, 안전자산 선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특히 연중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는 달러/원 환율의 추가 상승 압력은 외국인 수급에 우호적이지는 않을 전망이다. 또한 전일 美 증시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한 점은 테크 중심의 Mega cap 기업들의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준 만큼, 당분간 ‘지정학적 불안 - 유가 - 국채 수익률 등락 - 환율변화’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음. 단기적으로는 지정학적 불안 및 유가 상승에 민감한 에너지, 방위산업株 등과 변동성(V-KOSPI)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



## 생산 둔화 우려에 농산물 강세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2.11	대형 가치주 ETF (IVE)	-0.54
클린테크 ETF (CTEC)	-1.38	중형 가치주 ETF (IWS)	-0.40
소매업체 ETF (XLY)	-1.47	소형 가치주 ETF (IWN)	-0.81
온라인소매 ETF (EBIZ)	-1.85	대형 성장주 ETF (VUG)	-1.12
미국 인프라 ETF (PAVE)	-1.61	중형 성장주 ETF (IWP)	-0.68
핀테크 ETF (FINX)	+0.20	소형 성장주 ETF (IWO)	-0.92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06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47
클라우드 ETF (CLOU)	-1.39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0.12
사이버보안 ETF (BUG)	-0.47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0.47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2.06	미국 국채 ETF (IEF)	+0.64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1.82	하이일드 ETF (JNK)	-0.09
바이오섹터 ETF (IBB)	+0.40	신흥국 채권 ETF (EMBD)	+0.20
로봇&AI ETF (BOTZ)	-0.98	물가연동채 ETF (TIP)	+0.65
반도체 ETF (SMH)	-2.50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56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686.44	+2.25	+4.52	-2.19
유틸리티	301.00	+1.09	+3.61	-8.04
필수소비재	705.78	+0.84	+0.18	-6.69
헬스케어	1,516.76	+0.61	+0.10	-1.27
금융	552.00	+0.20	+0.48	-4.36
부동산	215.30	-0.04	+2.26	-6.22
소재	488.74	-0.37	-0.44	-4.66
산업재	860.99	-0.85	+1.00	-2.76
커뮤니케이션	228.50	-1.32	-0.21	-0.50
경기소비재	1,252.16	-1.46	-0.68	-7.47
IT	2,995.79	-1.52	+0.16	+0.31

글로벌 FICC 동향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87.69	+5.77	+5.92	Dollar Index	106.648	+0.05	+0.57
브렌트유	90.89	+5.69	+7.46	EUR/USD	1.0509	-0.16	-0.71
천연가스	3.24	-3.23	-3.06	USD/JPY	149.57	+0.23	-0.09
금	1,941.50	+3.11	+5.22	GBP/USD	1.2132	-0.33	-0.83
은	22.90	+4.26	+5.40	USD/CHF	0.9019	+0.71	+0.86
알루미늄	2,199.50	0.00	-1.87	AUD/USD	0.6302	-0.11	-1.24
전기동	7,949.00	0.00	-1.91	USD/CAD	1.3653	+0.20	-0.01
아연	2,446.00	0.00	-2.67	USD/RUB	97.6942	+0.04	+3.28
옥수수	493.25	-0.55	+0.25	USD/BRL	5.0786	-0.56	+1.33
밀	579.75	+1.44	+2.02	USD/CNH	7.3133	-0.02	-0.02
대두	1,280.25	-0.76	+1.13	USD/KRW	1,350.00	-0.85	-0.01
커피	154.90	+3.75	+6.06	USD/KRW NDF1M	1,351.07	-0.27	-0.63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4.612	-8.45	-18.85	스페인	3.880	-1.90	-12.70
한국	4.165	+7.30	-7.90	포르투갈	3.504	-1.70	-14.90
일본	0.761	+0.30	-4.40	그리스	4.300	+0.90	-10.90
독일	2.737	-4.90	-14.70	이탈리아	4.776	+1.30	-13.6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